

15만명 제주로... 방역당국 '노심초사'

설 맞아 10~14일 귀성객·관광객 제주방문 붐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도, 입도객 방역 강화

설 연휴를 맞아 10일부터 귀성객과 관광객의 제주 방문 행렬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도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와 정부가 설 연휴 제주 귀성과 여행 목적의 방문 자제를 강조했지만 15만명 안팎의 제주 방문이 예상되며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감염병에 장기간 고전해온 관광업계도 연휴 반짝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협회,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편은 총 2327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36편)보다 91편 늘었다. 항공편 예약률은 70~80%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등 15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휴를 지내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출도객까지 합하면 총 30만명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도내 5성급 호텔과 독채형 펜션은 전체 객실을 기준으로 50~60% 수준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

와 함께 렌터카와 골프장의 예약률은 60~70%로 아직 설 연휴 기간이 남아있어 예약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호텔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호텔 예약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설 연휴기간 평소보다 많은 고객들이 호텔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둔 초긴장 상태다.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제주 패키지 여행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하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일반 관리

시설(28개 업종)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집중 방역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번 설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며 설 연휴 제주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설 연휴기간 15만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일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민기자

관광객 제주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도, 같은 전세버스 탄 관광객 15명 등 격리조치 아라동 해장국집 관련 접촉자 1명도 확진 판정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중 한명은 서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가족으로, 제주에서 단체 관광을 하던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가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4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명(538번·539번)이 양성 판정을 받았

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월 들어 제주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으로, 올해 들어서는 118명으로 늘었다.

538번 확진자는 서울 강북구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왔다. 538번 일행은 제주에 입도한 후 가이드 1명을 비롯해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5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타고 관광을 했다. 538번 확진자는

제외한 전세버스 이용객 중 5명은 이미 제주로 빠져나갔으며 나머지 15명은 격리 중이다.

538번 확진자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6시쯤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538번 확진자는 방역 당국에 8일 오전부터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538번 확진자가 일행 3명과 함께 제주에 오고, 같은 여행상품을 구매해 전세버스를 타고 관광

에 나섰던 나머지 여행객 15명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제주에 여행 온 것 자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제주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와 식사를 할 때 5명 이상이 같은 자리에 앉았는지 등은 향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인 539번은 태진해장국에서 근무하는 529번과 529번의 자녀인 528번의 접촉자로 지난 5일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진행된 2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539번 확진자가 태진해장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지만 528·529번과 모처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제주도-사찰, 보조금 환수 소송전

불상 보호누각 공사비 보조 보조금 중 1억8800만원 논란

보조금 환수 문제를 놓고 사찰과 행정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도내 A사찰이 지난해 12월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소를 당한 제주도 역시 A사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다툼은 2013년 5월 A사찰이 9억8735만원 규모의 '석조약사여래 불좌상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진행한 다음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4억2811만여원을 교부 받으면서 촉발됐다. 이후 A사찰 주지가 이 공사와 관련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2019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실제 공사비가 최대 7억7854만원 그친다며 사업비 1억8000여만원이 부풀려졌다고 판단, A사찰 주지에게 징

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돼 출소했다.

제주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맞춰 A사찰에 1억8800만원의 보조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사찰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서 압류 절차까지 들어갔다.

이에 A사찰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절차는 중단됐지만, 제주도도 A사찰을 경찰에 고발하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피해액을 결정,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A사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A사찰 측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모두 업체에 선지급한 돈이다. 산정 금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패소한다면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5년 전 의료사망사고 논란 의료진 '무죄'

제주지법 "사망 예견하거나 사고 회피했다는 증거 부족"

제주에서 60대 여성이 수술 도중 숨진 것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6)씨와 이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홍씨는 신경과 전문의, 이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들은 2016년 8월 5일 뇌경색으로 쓰러진 A(당시 62세·여)씨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다 과다출혈로 숨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검찰은 A씨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히 여겨 곧바로 부검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지 않은 채 마취제 사용량을 결정, 수술 과정에서 A씨를 충분히 결박하지 않아 A씨가 스스로 동맥에 꽂혀 있던 시술 장비를 뽑은 점, △지혈을 방사선사에게 맡긴 점 등의 이유로 이들을 2017년 9월 26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료진이 측정한 체중과 A씨의 실제 체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방사선사가 지혈에 나선 것도 의료행위 범위 안에 있다"면서 "또 환자에 대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남조로서 트럭 전복사고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교차로 부근에서 트럭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제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남조로교차로

부근에서 트럭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운전자 A(43)씨는 119구조대 도착 당시 차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성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